

# 현대부르조아《신자유주의론》의 반동성

현 노 을

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하여서는 현대부르조아리론들의 허황성과 반동성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는 꾀변들을 들고나와 마치도 자본주의에 발전의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주의의 《합리성》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위기극복의 방도가 있는듯이 설교하고있다. 그 대표적 조류의 하나가 《신자유주의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온갖 허위와 기만으로 인민대중의 건전한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그들속에 부르조아반동사상과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풍조를 퍼뜨리고있다.》(《김정일선집》 제18권 중보판 259페이지)

《신자유주의론》은 약육강식의 자유경쟁을 인간사회의 자연적인 질서로 보고 사회생활에 대한 국가의 제한된 간섭을 주장하면서 경쟁원리를 사회생활전반에 도입함으로써 멸망해가는 자본주의의 운명을 건져보려는 부르조아반동리론이다.

《신자유주의론》은 1980년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널리 류포되였다.

《신자유주의론》은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의 심각화를 반영하여 1930년대에 도이쉴란드에서 발생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류포되였다.

원래 자유주의론은 자본주의제도의 발생과 함께 발생하여 자유방임과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사회관계가 인간의 본성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며 자연적인 사회질서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제도를 리상화, 절대화하였다. 그런데 1930년대 자본주의사회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인기를 잃고 밀려나있다가 1970년대

중엽 다시 개악되어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한 자유경쟁과 자유방임을 주장한 지난날의 자유주의론과 구별하여 자유방임을 거부하고 부르조아국가의 제한된 간섭을 주장하면서도 자유경쟁을 찬양하고 사회생활전반에 경쟁원리를 철저히 적용할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유경쟁론을 《신자유주의론》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신자유주의론》은 서부도이쉴란드(당시)의 사회경제정책의 기초로 되었으며 그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 류포되어 반동적국가경제정책의 리론적기초로 복무하였다.

《신자유주의론》의 대표적제창자는 미국의 밀톤 프리드먼 (1912~2006)이다. 그의 주요저서는 《자본주의와 자유》(초판 1962), 《선택할 자유》(1980) 등 이다.

오늘 《신자유주의론》은 부르조아사상가들에 의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첨예한 사회경제적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처방》으로 미화분식되고있다. 《신자유주의론》자들은 부르조아국가의 조절이 자유경쟁의 부족점을 보충 또는 개선할수 있는듯이 떠벌이고있으며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자유경쟁이 한나라의 범위안에서 뿐아니라 세계적규모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신자유주의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경쟁의 자유는 자연적, 합리적질서》라고 주장함으로써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를 합리화한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론》은 경쟁의 자유를 사회생활의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질서라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신자유주의론》은 사회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제한하고 자유경쟁을 기초으로 하는 시장원리

를 철저히 추구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즉 그들은 국가규제(간섭)제거, 국가재정지출의 삭감(국가보호철폐), 《복지정책》포기, 민영화와 사영화, 자유경쟁을 기초로 하는 시장원리의 철저한 추구를 자본주의사회의 위기극복과 사회발전의 전제로 들고나오고있다.

《신자유주의론》자들은 생물세계의 자연도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그대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경쟁을 사회발전의 원리로 본 사회다윈주의의 주장을 되살려 사회생활에서 시장경쟁의 원리를 철저히 추구하는데 사회발전과 번영의 길이 있다고 설교하였다.

사회다윈주의는 다윈의 자연도태의 원리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면서 사회생활의 원리로서 자유경쟁과 최적자의 잔존에 대한 견해를 제창하였다. 그들은 생물세계에서와 같이 인간사회에서도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작용하게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 최적자만이 생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인간사회생활의 근본원리라고 떠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억제하면 사회발전이 정지된다고 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회다윈주의의 주장을 더 개악한것이 《신자유주의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사회에 동물세계에서와 같은 생존경쟁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하게 하려는 꾀변에 불과하다.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은 인간사회에 필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하고있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생존방식은 단결과 협력이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속에서 살며 행동하는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회적집단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살려는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하고있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활동하여야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성원들

의 집단적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도 개조할수 있으며 자주적요구도 실현할수 있다.

사람의 생존방식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살아나가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의 법칙이 작용하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가 극도의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이기때문이다.

사람은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하지만 착취사회에서는 그것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개인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개인주의는 사적소유제도의 산물이며 착취계급의 사상이다.

생존경쟁이 사회생활의 합리적이며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신자유주의론》자들의 주장은 동물세계에서와 같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현상을 자연스러운것으로 정당화하려는데 그 반동적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신자유주의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시장의 자유는 세계인의 공동의 번영을 가져온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제의 《세계화》책동을 정당화한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론자들은 자유경쟁의 원리를 세계적범위에도 확대하여 모든 나라들사이에 관세장벽을 허물고 시장의 자유를 허용하면 세계공동의 번영이 이룩될것처럼 떠벌이면서 미제의 《세계화》책동을 찬양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공동의 번영의 미명밑에 해외시장에 침투하여 착취의 공간을 확대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이 침략적인 다국적기업들에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세계화》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미제의 《세계화》전략에 리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있는것이 《신자유주의론》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주의적, 착취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화》, 《일체화》의 간판을 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나라들사이의 경제교류가 세계적범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자주적인 민족국가건설리념이나 조국애, 민족애같은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적편견》이며 《세계화》, 《일체화》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떠벌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경제적교류와 협력 특히는 지역적일체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외곡하여 오늘의 《세계화시대》에 시장경제에 의한 세계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는것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부흥》을 위한 길이라고 설교하고있다.

그러나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오늘의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포괄하는 세계의 《일체화》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은 오늘의 현실적조건이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이 고수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

오늘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화가 추진됨에 따라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다방면적인 련계와 교류가 활발해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저버리고 자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다방면적인 련계와 교류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나라와 민족들의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 기초우에서 이루어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에 말려들어 시장의 자유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번영》은 커녕 사회적무질서와 경제의 파탄으로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세계화》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겪고있는 파국적후과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사소한 환상의 요소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는 피의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일체화》책동은 세계를 미국식 《자유세계》, 《민주주의세계》로 만들어 미국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게 하자는데 반동적목적이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제창하고있는 《신자유주의론》과 그에 기초하여 벌어지는 《세계화》, 《일체화》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살리고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